



추곡수매 시작 14일 광주시 북구 석곡동 광주농협창고에서 진행된 2016년 공공비축미곡 추곡수매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수매한 쌀가마니를 차량에 싣고 있다. 이날 매입량은 총 3477가마였다. 광주와 전남 지역 2016년산 공공비축미 계획량은 21만2000t(전국 84만7000t의 25.0%)이며 포대비 19만 8000t, 산물비는 1만4000t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승객 급증 송정역, 편의시설 확충은 ‘감감’

KTX 이어 SRT 다음달 운행...하루 이용객 50% 이상 늘어
복합환승센터 조기 완공해 주차장·대합실 등 불편 해소해야

SRT 개통 지역 대책은

내달부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운행될 예정이지만, 광주 송정역 편의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여서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우려된다. 특히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수서발 고속열차 개통에 따른 늘어나는 승객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4일 광주시와 코레일에 따르면, 수서역 SRT가 개통되면 송정역 일일 평균 이용객은 현재보다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역의 경우 호남선 KTX개통 이후 현재 하루 평균 이용객은 1만 3000~1만5000명 선이다. 수서발 고속열

차 개통이 이뤄지면, 하루 평균 이용객 숫자는 현재보다 무려 1만여명이 더 많은 2만3000여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호남선 KTX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송정역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와 대합실 협소에 따른 편의공간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코레일 측은 수서발 SRT 개통에 맞춰 주차공간 확보와 대합실 공간 확장, 교통 대책 등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늘어나는 승객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기존 대합실 공간을 SRT개통과 함께 확장 작업을 완료하고, 역사 뒤쪽에 22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장

부족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송정역 인근 교통종합대책으로 택시 승강장 질서유지 캠페인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무인카메라 설치,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를 통한 상시 단속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광주시와 코레일 측이 내놓은 이번 대책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송정역의 주차공간과 교통 체증 해소, 대합실 편의시설 확장 등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업계획이 이미 예정됨에 따라 도로 개설 등 교통대책이나 주차장 신설 등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계획에는 1600대를 세우는 지하주차장 설립과 환승시설, 업무·상업·문화 등의 지원 시설이 포함돼 있다. 애초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이 사업의 착공은 내년말로 연기된 상태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였지만, 최근 KTX 지역경제 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 대상지 선정으로 인한 개발계획 수립이 늦춰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한 건설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환승센터 착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매입과 관련해 코레일과 논의가 진행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 센터 지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내년 말에는 착공해 2019년 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SRT 호남선은

12월 개통을 앞둔 SRT(수서발 고속열차)는 호남선의 경우 하루 20회(편도) 운행한다.

최고 운행 속도는 시속 300km, 광주 송정역에서 수서역(서울 강남)까지 97분에 주파하도록 설계됐다. 상행 첫 차는 송정역 기준 오전 6시54분, 막차는 밤 9시54분

하루 20회 운행...광주~강남 97분 소요

요금 4만700원으로 KTX보다 13% 저렴

출발한다. 하행선은 수서역 기준 새벽 5시58분이 첫 차, 밤 9시58분 열차가 막차다.

운임은 광주송정~수서역 4만700원으

로 기존 KTX보다 최대 13% 저렴한 수준이다. 같은 구간 특선은 5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홈페이지나 앱(App) 구매 할인 등 다양

한 할인 제도가 있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운임은 더 줄어들게 된다고 운영사인(주)SR은 설명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노인, 유아, 군인 할인 정책도 포함됐다. 열차표는 전용앱과 홈페이지(etk.srail.co.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역사 내 창구에서도 구입 가능하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돼지유통 지급보증 잘못 8억원대 손실

강진농협 전 조합장 등 11명 무더기 징계

강진농협 전 조합장 등 11명이 돼지유통 지급보증(광주일보 7월 18일자 6면)을 잘못 서 대규모 채권손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징계와 견책 등 징계처분을 받았다.

강진농협은 지난 4일 농협중앙회 감사에 따른 ‘감사위원회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사고변상금 배상’을 최근 공시했다.

전 조합장 김모(직무정지 3개월, 6900만원), 상임이사 사모(직무정지 5개월, 8300만원), 상무 정모(징지 6개월, 1억 2970만원), 주임 고모(징지 6개월, 1억 2900만원)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총 4억 2300만원의 변상금과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 상무 김모(징지 2월)씨와 또 다른 상무 김모씨 등 6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강진농협은 지난해 1월 돼지유통업체인 K사와 거래중이던 농업법인 B사에

대해 지급보증 계약을 썼다. 양사 거래대금의 0.15%를 수수료 명목으로 강진농협이 챙기고, B사가 K사에 거래대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엔 농협 측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계약이다.

그러나, 농업법인 B사가 부도를 내면서 출하선금금 6억원과 돼지(생돈) 물품대금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6억8300만원, 농협 파머스마켓 부당취급 1390여 만원 등 총 12억 9700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징계결과를 두고 조합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 고모(52)씨는 “이사회 승인이 거치지 않은 사업 때문에 변상금 4억2300만 원을 제외한 8억 7400여만 원의 손실금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배당금에서 고스란히 빠져나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전국 PC방 절반 사기도박 프로그램 깔려

패 흠쳐보는 악성코드 심어 40억 채긴 65명 적발

전국 PC방 5200여곳의 컴퓨터 41만대에 악성코드를 심어 이용자의 도박패를 보는 수법으로 온라인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는 전국의 PC방 절반 가량에 달해, PC방 2곳 중 1곳은 사기도박 범죄에 노출됐다는 의미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유포해 온라인 도박게임 이용자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40)씨 등 18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기도박에 가담한 4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 등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의 패를 다른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국 5200여개 PC방 컴퓨터에 유포해 2014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국의 영업 중인 PC방 1만 2500여곳(2014년 기준, 통계청)의 41.6%

가 악성 프로그램에 노출된 셈이다.

서씨 등은 PC방 컴퓨터 관리업체 서버를 이용하거나 유지·보수업체 직원 ID를 해킹해 컴퓨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에 악성 코드를 숨기는 수법으로 PC방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PC방 이용자가 카드도박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실행돼 이용자의 화면이 사기도박을 하려는 일당에게도 보이는 식으로 만들어 프로그램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사기도박 실행자들은 일당 20만원가량을 주고 일명 ‘선수’들을 고용해 감염된 PC에서 게임·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의 패를 훔쳐보며 승리한 뒤 게임머니를 현금화했다. 경찰이 확인한 부당 이득 규모는 서씨와 PC방 관리업체 임원 김모(39)씨 3억원, 해커 노모(41)씨 10억원, 프로그램 판매책 4명 20억원, 사기도박 실행자 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도박중독 증세 30대, 기초수급비 가족에 주자 주민센터 불 질러

○...도박중독 증세가 있는 정신분열증 환자가 기초생활수급비를 자신에게 직접주지 않고 여동생에게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주민센터에 불을 질렀다가 구속될 처지.

○...14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공용건조를 방화 혐의로 붙잡힌 권모(39)씨는 지난 12일 새벽 2시께 광주시 북구 한 주민센터 현관에 휘발유 1ℓ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

○...주민센터와 구청은 권씨의 정신질환과 도박중독 증세를 우려해 권씨가 족에게 수급비를 지급해왔는데, 경찰은 “권씨가 지난 10월31일과 11월1일에도 같은 주민센터에 맥주병과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달아난 것으로 미뤄 자신에게 수급비를 직접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팟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보성, 복내면 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87번지 외 5필지(81-1,4,5,6,7)
- 13만평중 1/5지분, 26000평
- 야산, 전기시설, 임로개설
- 매매-2억6000만원

화순, 동북면 임야

- 동북면 연월리 산195-2,7,8번지 29381평, 2차선 국도접합
- 번지내 1층건물 포함 (53평)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매매 - 9억, 감정이 - 9억

북구, 청풍동 임야

- 광주 북구 청풍동 산272-1 2339평, 지역복지지역
- 신촌마을 북서쪽에 위치
- 장기투자 최적
- 매매- 3500만원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동구 수기동 23-2
- 20층중 9층, 32평, 코너
- 전체율수리, 전망최고
- 주거겸 사무실, 시세 1억4000만원
- 매매 - 1억원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나주, 공산면 근린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무안, 일로읍 잡종지

- 무안군 일로읍 청호리 323-3
- 잡종지 1081평
- 옆 국유지 약700평 있음
- 공장등 용도 다양
- 매매 - 2억2000만원

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구례, 산동면 대형모델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금호동, 근린상가

- 서구 금호동 243-6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 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보5천만원에 월250만 임대 가
- 매매 - 6억(조정가), 감정7억